

농림위성 발사 성공...농업 혁신 본격화



▲위성발사(농진청 제공)

농진청, 농업위성정보 생산·활용 본격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우주항공청, 산림청과 함께 개발한 차세대중형위성 4호(이하 농림위성)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전국 농경지 이용 변화와 농작물 재배 현황을 더 정밀하고 신속하게 점검(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외 위성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농업 특화 위성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국내 최초 농업·

산림 분야 관측용 국가 위성으로 전국 농경지와 농작물을 3일 주기로 관측한다. 관측 영상은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축적한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이용해 기상·공간·현장 정보 등과 융합된 후 농작물 재배면적, 생육 정보, 농경지 변화 등 다양한 농업위성정보로 생산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한 농업위성정보는 △주요 농작물 작황 정보 생산으로 선제적·자율적 수급 관

리 △농경지 분석 정보 생산으로 공익직불 기반 소득안전망 강화 △농업재해 위험관리 정보 생산으로 농가 경영 안전망 확보 등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위성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 특화 국가 위성을 확보하고, 전국 농경지와 농작물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현장이 요구하는 농업위성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후속 위성 도입

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방향 및 전략 연구’에 농업위성 수요를 제안했다. 이 제안이 채택되면서 기획연구(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18년), 국가우주위원회 기본계획 승인(2019년) 등을 거쳐 농림위성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후 주요 작물 생육 분석, 비재배면적 추정 등 농업 원격탐사 연구로 축적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4년에는 ‘농업위성센터’를 신설했다. 농업위성센터는 농업위성 운영과 농업관측 정보 활용 연구를 수행하며, 앞으로 생산될 농업위성정보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ontimes.com

농협중앙회, ‘농협 대전환’ 본격 추진

중앙회 기능, 농업인·조합원 중심으로 재편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8일 고강도 조직 쇄신을 골자로 한 ‘농협 대전환’ 방안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실행에 돌입한다. 이번 방안은 ‘농협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 과제를 조직에 실행하고, 외부의 개혁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업인·조합원 중심의 지원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추가 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농협 대전환’ 방안은 △중앙회 운영 쇄신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총 1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농협은 이를 통해 ‘조합원에 게 힘이 되는 농협’, ‘농업소득 3천만 원 시대를 주도하는 농협’으로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앙회 운영 쇄신’ 부문에서는 투명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높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적자 계열사의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외부위원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돌봄사업을 확대하는 등 중앙회 기능을 농업인·조합원과 농축협 중심으로 재편해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농가의 실질적인 경

영 부담을 덜기 위한 2,2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프로젝트 ‘힘내라! 우리 농업’을 추진한다. 생산비와 유통비,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실익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협은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와 연계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햇빛연금 확산과 보금형 스마트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APC 확산과 AI도축 로봇 도입 등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하고, 농축산물 판매 역량을 강화해 경제사업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강태영 기자
kya0712@daum.net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4대 권역 물류망 구축 본격화

수도권·강원권·영남권·호남권 거점 연계 운영체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6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점 물류센터 시범사업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점물류센터 시범사업’은 산지와 소비자 간 1:1 개별 직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품종 소량 운송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물류체계 구축 사업이다. 다수의 산지를 순회하며 물량을 수집하는 ‘밀크런(Milk-Run)’ 방식과 물류센터 입고 즉시 목적지별로 재분류해 배송하는 ‘크로스도킹(Cross-Docking)’을 결합해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aT는 이러한 거점물류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도권(이천), 강원권(강릉), 영남권(대구), 호남권(광주) 등 전국 4대 권역 거점 간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별 거점 운영주체, 제3자 물류(3PL) 사업자, 물류시스템 개발사 등이 참여하며, 민관 합동 상시 실무 협의체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역별 거점 운영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일정과 시스템 연동, 물류 프로세스,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aT는 직영 비축기지 현장을 대상으로 범무법인 태평양 소속 노무사의 산업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각 권역 거점 운영주체와 지방

자치단체에 안전관리 기준을 공유하고 교육을 병행해 거점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aT 김창국 부사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각 권역의 물류 운영주체들이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게 됐다”라며, “오는 8월까지 인프라 점검과 시스템 연동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거점물류센터를 정식 가동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의 물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점물류센터는 7월 중 판매사와 구매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시범사업 협의체 첫 회의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세계 어디서나 찾는
K-푸드는 곧 안심입니다!

**글로벌 해섭으로
K-푸드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 광고는 한국연륜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통해 실시되었습니다.